

## 의로운 평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읍니다. (마태복음 10 : 34)

한국에 오래 전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을의 푸른 하늘과 한국 젊은 이들의 눈동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꽤 공감을 느꼈으나 한국의 가을과 젊은이 특히 어린아이들의 구김살 없는 눈동자에 대한 사랑에 한국인으로서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눈동자가 언제까지 행복스럽게, 평화스럽게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입니다. 최근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꼭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아름답고 발랄한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결혼 문답을 하면서 평생 해로를 서약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까지나 평화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약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불안,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안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감돌고 있어서 이런 불안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민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마음 속 깊이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실재적인 어떤 불안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평화와 행복에 대한 갈망이 한층 더 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을 생각할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성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랑과 화해를 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인간 공동체, 즉 우리의 가족 생활에 평화가 아닌 칼을 던져 서로 불화하고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마태 10: 35-38)

가족제도를 전통적인 미풍으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아버지에게 맞서게 한다든지 딸을 어머니에게 대항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말인데, 하물며 집안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이다라고 단정한 극단적인 발언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이 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에 강요한다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의 현실에서 일상 생활의 경험의 통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문자 그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반대  
면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흔히 보는 인간 관계는, 주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동창생, 같은 직장, 또는 전우 관  
계 등인데 이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맺어진 관계는 역시 가  
족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 형제간의 애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 인간에서 이 이상 더한 사  
랑의 관계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지간의 우정,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간의 애정,  
한 학교의 동문 관계 등이 때로는 사회 생활의 출세의 줄을  
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밑바닥에 이런 인간  
관계가 인간적인 잘못·부정·부패를 은폐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조장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  
들은 그 자본을 독점하기 위해서 가족 회사를 만들고, 권력  
을 잡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 선후배라는  
인간 관계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  
다.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을 나누고 도  
움을 주고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잘못이 있  
을 때 그 잘못을 내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또는  
내 선배, 후배니까 하며 눈감아 주는 빈번한 사례를 그쳐 간  
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밖에서 반사회적인 일을 해서 돈을 모으  
더라도 그것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인간 관계가 오히려 사회를 좀 먹  
는 폐단을 결과하는 기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  
회는 예로부터 가족 중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강하게 민족성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내 가족과 자식만 잘 키우면 되고 이를 위해서는 더 큰 공동체에 어떤 폐를 끼쳐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애정 관계에 의로움이 없을 때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한 사랑과 인간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뻔히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인정에 물려서 말려들어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인간 관계란 무엇인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은 결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존대하면 자기의 인격이나 품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지닌 초월적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추하고 비겁하며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그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지닌 영원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타당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가정·학교·교회의 공동체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즉 내 이웃과 타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 혈연 관계만으로는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공동체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맞서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혈통 관계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공동체 원리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부모 자식간, 형제간의 애정 속에는 타락과 유혹이 많으니 이 관계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심층 심리학을 처음 주장한 프로이트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하는 심정과 그 권위에 항거하는 모순된 심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숭배와 순종이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권위에 항거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토렘 숭배가 바로 인간의 이 깊은 자기 갈등을 이기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혼을 위로하는 제사가 바로 토렘 종교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심층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부자간의 심리적 갈등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층 심리적인 갈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

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골로새3:12)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통속적인 말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다가도 결국 화해를 하는 것이니, 아무 기준도 없이 좋게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었으니 그의 뜻을 따라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는 주체는 내 자신이나 상대방이 아니라 십자가로써 죄인과의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진정한 용기가 있을 수 없고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장안의 인기를 끈 텔레비전 연속극에 〈여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시골 명문 집에 출가했다가 병신 남편을 만나 생활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천대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사기꾼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하다가 결국 시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마침 한국 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간 그녀는 식당을 운영해서 크게 성공하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를 속이려던 악인이나 시집 식구들은 흩어졌다가 온갖 운명적인 회통 속에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옛날 자기 떠느리었던 이 여인하고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서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와 떠느리와의 대화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은 용서할 것이 없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생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용서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지 못  
합니다. 심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용  
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한다는 심정을 갖  
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국민 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참 의도하는 바는 국민이 모두 한 마음으  
로 뭉쳐서 외세에 대비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안이한 기치나 슬로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총화란 국민 자자  
가 자기 소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런 일에 있어 상대  
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관용과 이해로써 화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사상적인 것, 이념적인 것까지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때  
서는 명령과 복종 관계는 있어도 총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  
다. 총화라는 말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 산  
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같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판을 받게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단  
순한 운명으로 체념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의  
의가 다분하며 그런 점에서 단순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  
인 공동체라면 이 교회는 대단히 위험하고 나약한 교회가 됩  
니다. 같은 사람끼리 총화로 뭉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  
치적 우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총화의 뜻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이방적인 타인, 즉 나와는 도저히 용  
해될 수 없는 타자와의 창조적인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의

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 권리가 없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사랑, 권리·평등을 주장하는 동시에 남에게 주는 권리에게도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알력과 충돌이 있게 되며 인간적인 우의를 깨뜨리는 창조적인 사랑의 싸움이 예상됩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공동체란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진통,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수반합니다. 창조적인 사랑, 아가페는 결코 감상적인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과 꾸준히 싸워서 그것을 의롭게 만들어, 내 것으로 포용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 장소에서 다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사랑의 공동체에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사랑, 그 속죄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를 다시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체험에서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은 내 육신의 아들이지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이지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아버지이다. 내 아내는 내 사랑을 받는 아내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내요, 내 남편은 나의 순종과 애정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의 주는 십자가에 달



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간의 육정을 제단에 바치고 의로움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존중해 주는 장소가 바로 나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총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총화가 이루어집니다. 맑고 푸른 한국의 가을 하늘, 젊은이들의 눈동자에는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아름다움 속에서 십자가의 그늘을 보는 자만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의미, 역사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6. 10. 31 한빛교회)